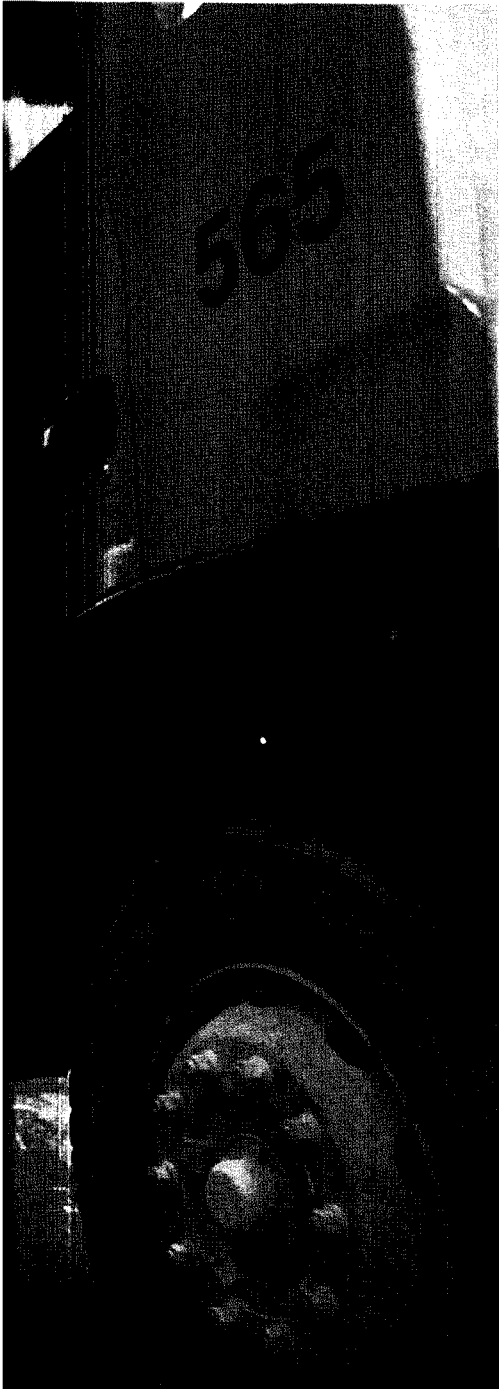




안전한 시공,  
안전한 준공을 약속하는 무결점 현장

두산건설 사당영아아파트 재건축 현장

취재 · 사진 | 최종덕 기자(safeeng@safety.or.kr)



## 두 개의 인증시스템을 적용시킨 위험성평가

두산건설은 OHSAS 18001 시스템을 인증·도입한데 이어 2007년 KOSHA 18001 인증을 받아 전 현장에 이 시스템을 도입했다. 이에 따라 이곳 현장은 이들 두 인증시스템 지침에 있는 위험성평가 부분을 2주 단위로 실시, 철저한 위험관리를 통한 안전 현장을 만들어가고 있다.

각 팀에서는 2주간 진행될 공정에 대해 미리 위험인자를 도출하고 이에 대한 개선대책과 만약에 있을 후속조치까지 만방의 준비 체제를 갖추는 것이 정례화되어 있다. 그리고 과거에 있던 사고 사례 등으로 구성된 내용으로 월 2회 안전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이러한 큰 틀에서의 안전관리 시스템은 KOSHA 18001에 의해 진행된다.

그러나 공사 시작 전 위험인자 확인과 대책 마련 등의 세부적인 사항은 OHSAS 18001에 의해 진행하면서 두 개의 시스템을 유기적으로 활용하고 있으며, 특히 사고 예방관리를 체계화하고 있는 것이 인상적이다.

이처럼 현장 안전관리를 위한 위험성평가가 큰 틀에서 운영되고 세부적인 틀에서 2주 단위로 진행되는 두산건설만의 독특한 운영방식으로 이곳은 무재해 현장을 지속해 나가고 있다.

## 자율적 환경에서의 안전관리

과거 건설현장에서의 안전관리는 수직 하달식의 전달방식이 주로 사용되어 왔다. 당연히 강압적 일 수밖에 없고, 받아들이는 근로자들도 보이는 안전, 형식적인 안전활동을 하는 풍토에 젖어있었다. 최근 지속적으로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는 것도 근로자 스스로가 안전의 필요성을 인지하고 이행하는 안전관리 활동이 아니기 때문이다.

최근 건설현장에서 “자율안전관리”가 적극 시행되고 있지만 이 또한 성과 위주의 안전관리를 하면서 본 취지에 어긋나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볼 때 두산건설 사당영아아파트 현장은 자율안전관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하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먼저 소속감을 높이고 서로를 존중하기 위한 활동으로 “휴먼퍼스트 활동”을 펼치고 있다. 무재해 현장을 만드는데 많이 기 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 “휴먼퍼스트 활동”은 팀별대항 탁구대회와 서로 안아주기, 명상 시간 운영을 통해 본인 스스로가 안전을 지켜야 하는 이유를 부여하는 프로그램이다. 이곳은 이와 같은 프로그램을 앞으로도 아낌없는 투자를 통해 적극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투자 없이 근로자들에게만 안전을 요구해서는 절대 안전한 현장이 될 수 없습니다.”라는 김영준 소장의 말처럼 자율안전관리 체제를 위한 투자에 대한 확대가 무재해 현장, 무재해로 준공하는 현장으로 만들어 갈 것이다.

## 후진국형, 재래형 재해는 없다

최근 공사규모가 대형화, 초고층화되면서 위험작업 형태도 다양해지고, 산업재해 건수도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추락, 전도, 감전 등의 재래형 재해 역시 줄어들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재래형 재해를 줄일 수 있는 안전문화가 정착되어야 전체 재해 중 상당수가 감소될 수 있다는 것은 안전

일반적으로 먼지가 날리고 자재가 무성한 현장이면 떠오르는 곳이 바로 건설현장이다. 건설현장은 한 번에 여러 공정이 복합적으로 이뤄지다보니 무질서해지기가 쉽고, 이에 따라 위험성도 높아진다. 그래서 건설현장에는 “정리정돈만 잘해도 사고의 반은 줄어든다”는 말이 항상 따라붙는다.

헌데 최근 위의 말이 무색할 정도로 깨끗한 건설현장이 있어 화제가 되고 있다. 그 주인공은 바로 두산건설에서 시공하고 있는 사당영아아파트 현장이다. 청정한 국립현충원과 까치산 근린공원을 안근에 두고 있는 이곳은 2009년 3월 착공에 들어가 내년 11월 준공을 목표로 재건축이 한창인 현장이다.

이곳은 도심 한가운데서 시공을 한다는 부담을 갖고 있으면서도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이를 잘 극복해내고 있다. 주민들과 미움을 함께 가꾸고, 안전한 공적으로 신뢰를 쌓아가고 있는 것.

안전한 시공과 안전한 준공으로 주민들에게 거주지의 차원을 넘어서는 안락한 안전세계를 선물하겠다는 이곳 현장 속으로 들어가 봤다.

인이라면 누구나 다 아는 사실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두산건설 현장에서 시행하고 있는 교육방식과 안전시설은 산업재해로 일그러진 우리사회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근로자 의식부터 바로 잡아야 한다고 보는 이곳 현장은 다각적이고 실질적인 안전교육을 통해 의식을 고취시키고 있다. 사고사례 중심의 시청각 안전교육과 산재근로자 체험담을 통해 산업재해의 불행함을 알리는 등의 안전교육이 그것.

이밖에도 대형재해로 이어질 수 있는 위험인자에 대해서도 철저한 관리를 하고 있다. 중대재해의 주범이라 할 수 있는 갱폼은 갱폼낙방지시스템(G.F.B)을 도입했고, 콘크리트 타설 전 볼트 설치가 누락된 곳은 없는지 확인하는 시공담당자를 지정해 놓은 것은 물론 갱폼 인양전 작업발판 상부 자재를 100% 제거하여 무재해 현장으로 이끌어 왔다.

앞으로 공기가 1년 남짓 남은 지금, 이곳은 그동안의 무재해를 '3-Zero challenge Campaign(무사고, 무재해, 무결점 현장) 운동'으로 준공 그날까지 이어간다는 결심을 굳게 세우고 있다. ☺



## 먼지없는 공사로

기다 나서는 두산



김 영 준 현장소장

양장설 계획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근로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안전활동을 더욱 장려할 것입니다.

현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면 현장소장인 나부터 책임을 져야하겠지만 가장 큰 피해를 입는 당사자는 바로 근로자 자신임을 인식하고 안전을 지켜줄 것을 당부 드립니다.

### 산업재해로 인한 가장 큰 피해자는 근로자 자신

제가 이곳 현장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아 현재까지는 현장 파악에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짧은 시간이지만 안전관리시스템에 있어서는 잘 갖춰져 있다는 느낌을 확실히 가질 수 있었습니다. 전임 소장님의 안전에 대한 열정을 보는 듯합니다. 한편으로는 잘 갖춰진 현 시스템을 잘 아껴 무재해 준공을 해야 한다는 부담감도 느껴집니다.

통상적으로 현장에서 안전하면 무의식적으로 스쳐지나가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만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데, 이를 자주 인식시켜 현장 근로자 모두가 안전의 중요성을 깨닫도록



서 용 하 안전팀장

즉, 안전은 자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최소한의 책임인 것입니다.

### 안전, 사랑하는 가족을 위한 책임

안전은 행복한 삶을 영위하기 위한 가장 작은 단위라고 생각합니다. 행복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풍요로운 경제여건, 명예, 보장된 자녀들의 미래 등이 있겠지만 건강하지 못하다면 이 모든 것들은 그림 속 떡에 불과합니다. 내 자신이 아프고 병들면 그 어떤 풍요로움도 즐길 수 없기 때문이지요.

산업재해가 바로 행복을 저해할 수 있는 요소입니다. 행복했던 가정일지라도 가정이 산업재해를 입는다면 한 순간에 좌절의 삶을 살게 될 수도 있기 때문이지요. 이처럼 산업재해는 산재근로자 당사자에게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본인이 가장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에도 영향을 준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